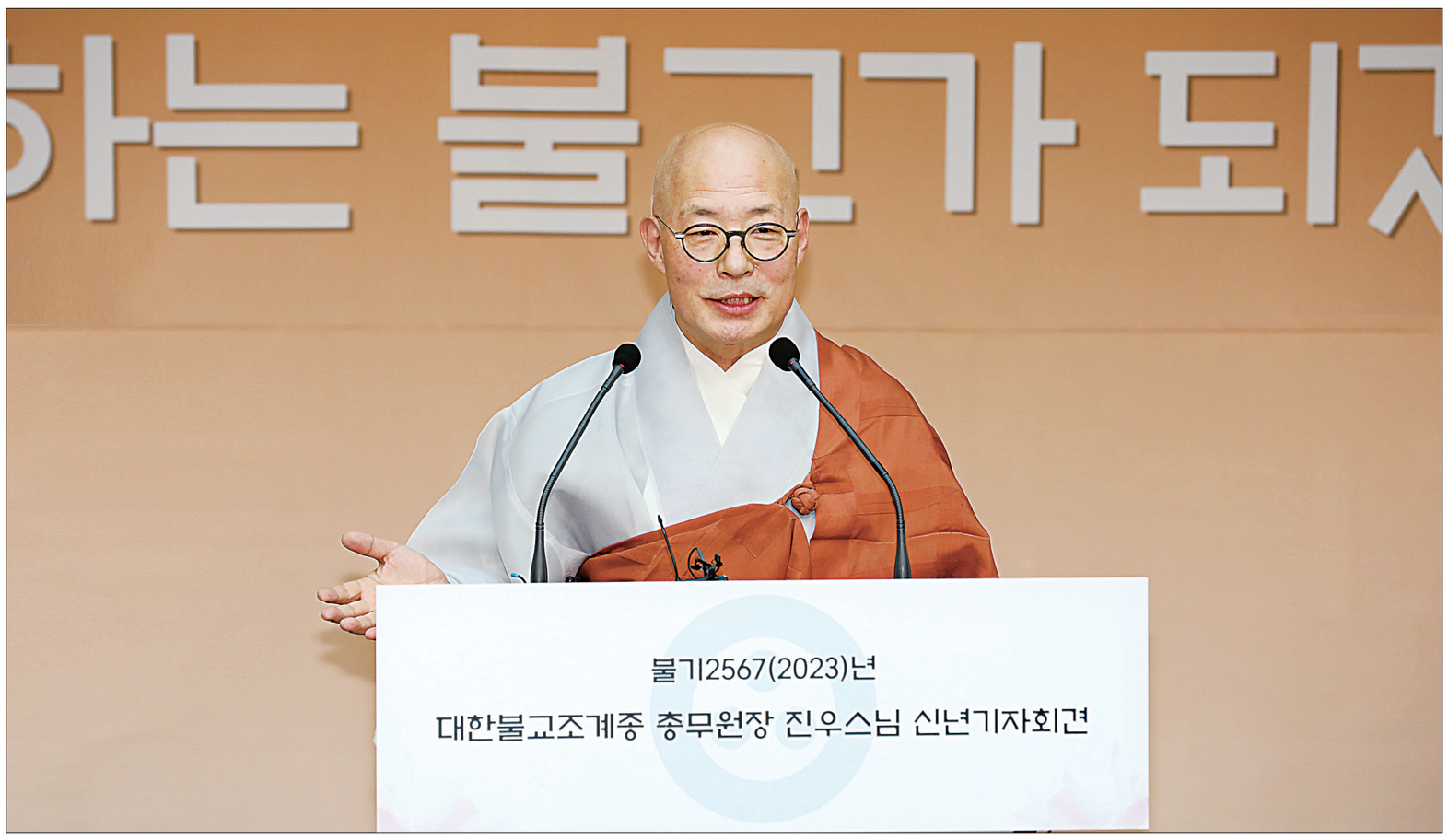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11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소통 · 복지 · 문화로 성장 동력 세운다

키워드로 본 진우 스님 신년기자회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첫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을 살펴보면 진우 스님이 이끄는 제37대 집행부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승려복지 강화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주요 핵심 과제로 꼽았다.

소통 강화 진우 스님이 밝힌 첫 핵심 과제인 '불교의 사회적 소통강화'는 주요 공약이었던 명상센터 건립 등을 골자로 한다.

명상센터는 서울 용산에 들어서며, 어느 정도의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서 진우 스님은 "서울도심권에 명상센터를 만들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명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서울도심권 명상센터는 현재 부지가 확보됐고,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 있다. 또한 제주와 전라, 경북권의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어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명상센터에서 사용될 프로그램 개발도 이뤄진다. 오는 2월에 조계종 명상프로그램 기획위원회가 구성되며, 2024~2025년 명상프로그램을 완성 및 검증과정을 거쳐 2026년 조계종 명상프로그램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의제 실천과 대사회 소통을 위해 각종 위원회들이 강화되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사회부 관련 위원회의 역할을 분석하고 재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노동위원회의 활동 역량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소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승려복지 강화 승려복지 강화는 안정적인 승가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스님들의 초고령화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우 스님은 종단 직영 요양병원 인수 ·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인수할 요양병원은 의료법인 인덕원이 운영 중인 파라밀 요양병원으로 경기도 안성에 소재하고 있다. 인수 절차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조계종은 1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를 살펴보면 의료법인 명칭은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이며 승려복지 관련 의료시설 설치 · 운영을 비롯해 승려 의료복지 연구조사, 홍보, 자원봉사센터 사업 등을 시행토록 명문화됐다.

입법예고를 거쳐 종령이 제정되면 오는 1월 20일 의료법인 인덕원과 인수인계 협약 체결이 이뤄지며, 5월 중 개원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종합적 복지시스템 구축도 추친된다. 올해 중 승려복지회를 중심으로 승려복지 현황과 모범사례 조사가 이뤄지며, 이를 토대로 2025년까지 승려복지 통합지원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2026년까지 승려복지 제도 및 법령 개선,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 승려복지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불교 문화 진우 스님이 제시한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는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천년을 세우다'라는 슬로건 하에 추진되며 조계종은 1월 11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추진준비위원회는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재가대표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추진위원회 출범의 준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4월 19일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1월 25일부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 매일 기도 정진이 이뤄지며 전국 사찰에서 축원도 진행된다. 조계종은 올해 중으로 열암곡 마애불 보존관리 방안 연구용역 세미나를 열고, 내년 입불 실대형 모의실험을 거쳐 2025년 마애불 입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통 강화
서울 용산에 명상센터 건립
'조계종 명상프로그램' 개발
사회노동위 역할 강화될 듯

승려복지
안성 파라밀병원 인수 추진
의료법인 설립 시행령 입법
통합지원 서비스 구축 계획

불교 문화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연구 거쳐 2025년까지 완료
오는 4월 19일 추진위 출범

국제포교사회장 정혜 스님 취임

조직 강화 및 해외포교 활성화 추진 내걸어



국제포교사회 제13대 회장으로 정혜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국제포교사회는 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법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국제포교사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제12대 회장에 이어 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혜 스님(현 고창 마하사 주지)은 국제포교사회 창립 이후 첫 스님 회장으로,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정혜 스님은 회장 취임사에서 "국제포교사회 창립 이래 회장단과 모든 회원들이 쌓아온 업적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하는 국제포교사회를 만들겠다"며 "부처님 한 분 성불해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듯이 국제포교사 한 사람의 발심이 온 세계 사람을 발심시킬 수 있다는 원력으로 매일 매 순간 발심하고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우선 내부조직을 강화하고, 해외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2명의 수석부회장(국내 및 국외) 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호남제주지부와 해외지부를 신설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국내외 포교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포교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국제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내 위원회를 두어 양성과정을 전문화하고, 교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학생들 "새터민 학우 쾌유 기원"

불의의 사고 당한 북한 출신 학생위해
동국대 구성원들 기도법회, 모연 활동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북한 출신 동국대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에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생 및 학생대표들과 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소정의 병원비를 모금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월 11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동국대 재학생이자 새터민 A학생의 완쾌 발원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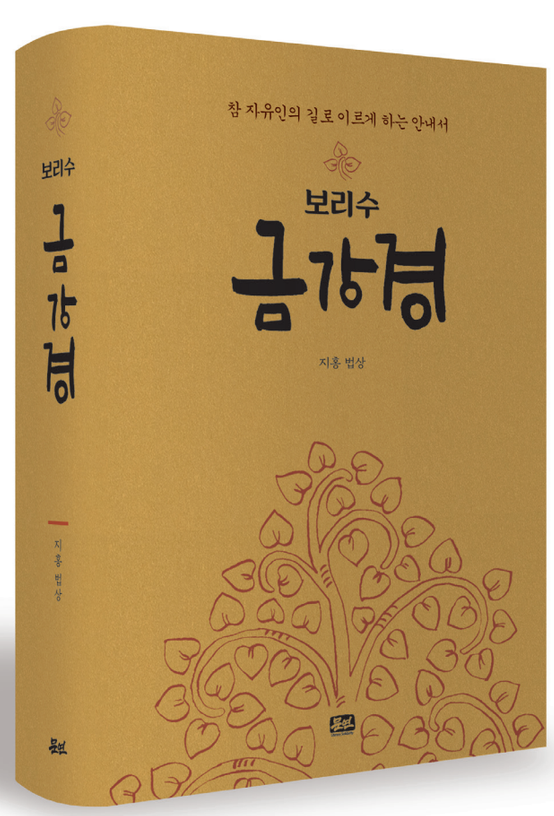
법회에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곽채기 교무부총장, 정각원장 진명 스님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생 대표들과 건학위원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학생들도 함께 참석해 학생의 완쾌를 기원했다.

A학생은 북한 출신 동국대 재학생으로 지난달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늦은 나이에 탈북하고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학업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2021년 동국대에 입학했다. 금전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 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사업의 장학생으로도 선발된 바 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우리 대학 재학생이자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학생인 A군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압록강을 건너왔던 의지처럼 지금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월 11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동국대 재학생이자 새터민 A학생의 완쾌 발원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참 자유인의 길로 이르게 하는 안내서!

반야의 묘지를 전하는 금강경,
금강의 활과 반야의 화살로 사상의 과녁을 깨뜨려라

금강경은 수행자에게 공혜(空慧)로써 체(體)를 삼고, 무상(無相)으로 종(宗)을 삼아 모든 법이 무아(無我)임을 일러주신 경이다. 그런 점에서 금강경은 부처의 길로 이르게 하는 안내서이다.

금강경의 본지는 파이집 현삼공(破二執 現三空)으로, 파이집(破二執)은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깨트리면 아공(我空)·법공(法空)·구공(俱空)이 드러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불법은 광대한 바다와 같아서 믿음으로 증입(證入)할 수 있고 지혜로 건널 수가 있으므로 여기서 여시(如是)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중생들의 마음속에 청정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불법에 증입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법에 증입할 수가 없다.

보리수 금강경

920쪽 | 55,000원



지홍 법상
김해 정암사 주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법보신문에 〈사찰에서 만나는 주련〉을 연재하며 『사찰에서 만나는 주련』과 『불교 재齋의례 게송』(2022년 문학연대)을 출간하였다.

문학 Literary Solidarity 주식회사 문학연대는 사람의 삶에 서정을 입히고, 장르를 넘어서는 문학의 세계를 꿈꾸는 출판 기업입니다.